

News

은행 신용대출, 고신용자 쏠림 심화... 절반이 1등급

동아일보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고신용자가 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까이를 싹쓸이.... 1등급의 비중은 4년 새 8%포인트 늘어...
1등급에 대한 신용대출 쏠림이 심화된 데는 저금리 속에서 나타난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쳐...

은행권, 코로나19로 제동 걸린 '해외 시장' 공략... "확장 기조는 유지"

더팩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은행권의 해외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려... 올해 예정됐던 해외 점포 설립을 연기하거나 취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법인들의 공격적인 영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영끌-빚투... 30대, 최근 3년 신용대출 47조로 최대

동아일보

최근 3년간 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영끌' 수요와 주식 '빚투' 수요 등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
신규대출액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많아... 30대 신규 대출은 올해 13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동기보다 72.3% 높은 수치...

만 14~18세 청소년도 '카뱅' 이용 가능

국민일보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내놔... 젊은 층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청소년들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만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 주요 고객층이 될 청소년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공동재보험 도입, 망설이는 보험업계... '왜?'

머니투데이

공동재보험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업계 반응이 미지근....공동재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게 역설적이게도 '초저금리 시대의 장기화' 예상 때문...
현재 금리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상태라 공동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이 늦춰진 것도 이유...

큰 놈만 살아남는다...GA시장 지각변동 알리는 세 가지 신호탄

서울경제

GA 시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제도와 고용보험 의무화로 옥석가리기 본격화 예상...
"높은 건전성과 자본력, 신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상장 GA와 자회사형 GA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GA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것"

증권사들, 올 상반기 시장조성자 혜택 1600억원 육박

이데일리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 대가로 얻은 인센티브가 1600억원에 육박... 시장조성자들은 시장 조성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받아...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 밝혀...

라임에 옵티머스... '쑥대밭' 된 증권사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의 책임을 증권사 최고경영자에게 물어 '직무정지'를 예고....검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대상 강제수사에 나서...
"직원들이 비위를 저질렀거나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면 해당 부서장을 징계해야 하는데 대표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자리를 내려놓으라니 당혹스러울 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